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2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덧입고 싶은 오늘의 전통에 술'을 그리는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

일월(日月) 임흥소고

“21세기 감수성 담아낸 국악 무대 만나보세요”

보다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국악으로 21세기 감수성을 담아낸 '그린국악'이 한층 더 경쟁력 있는 작품들로 오는 3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프로그램도 흥미롭게 구성됐다. 오는 3일 영유아를 위한 전래 영아 놀이 노래 '질라레비 뽀뽀', '두꺼비보다 잘도 긴다' 등 무대는 어린 시절 전통에 술의 뿌리를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다. 애니메이션과 음악적 요소를 바탕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17일에는 '그린국악의 비단길, 그 미로 찾기'라는 주제로 판소리 합창 '범피중류', 가야금병창 2중주 '방아타령'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오는 3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남도소리울림터 전래 영아 놀이노래부터 줄광대 '남창동' 청년명인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또 보고픈' 볼거리로 꽉 채워

7월1일 컨템포러리 아쟁 이중주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아쟁 연주를 맡은 신정민·김정민 단원이 이날 무대에 나서 직접 편곡한 곡을 들려준다. 가락 구성이나 무대 연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색다른 공연을 펼쳐낸다.

7월8일에는 흐를수록 깊어지는 인생을 그린 국악 관현악 합창 '물 흐르는 내력' 무대를, 7월15일에는 '광대의 정원에서 부채춤 추는 무희들'을 주제로 채상 설장구놀이, 판소리, 백매 한량무 등 공연이 마련돼 있다.

8월28일에는 국악관현악의 정체성을 가진 즉흥 연주 등이 준비돼 있다. 지휘자 없이 박을 쳐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박(執拍)과 연주자들의 자생적 호흡만으로 이뤄낸 '국악 관현악 산조합주' 등 새로이 선보이는 작품들로 무대를 꽉 채운다.

이번 시즌 특집공연도 다수 마련됐다. 6월24일에는 단옷날을 맞아 최근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젊

은 줄광대 '남창동' 청년 명인을 초청해 화려한 줄타기 묘기를 선보인다. 7월29일은 무용특집으로 꾸며졌다. 지난해 정기공연 작품으로 첫 선을 보인 '초연: 산이 다한 곳, 구름 한 송이'를 다시 무대에 올린다.

특히 8월12일에는 지난해 전석 매진을 거듭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당신이 답이다' 시즌3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는 유명한 국사 일타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나와 당신의 오늘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총연출을 맡은 류형선 예술감독은 "토요 가무악회 '그린국악'은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또 보고싶을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도민들로부터 쌓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국악이라는 장르의 편견을 깨고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요일 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2 공연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국악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1-980-9955)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국악 관현악 산조 합주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클라리넷 앙상블 '계절이 지나간 곳에'

오는 5일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클라리넷의 화려한 기교와 풍부한 울림을 선사하는 공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스트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 무대로 광주클라리넷 앙상블 '계절이 지나간 곳에'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



광주클라리넷앙상블은 2018년 음악 선도할 젊은 클라리넷 연주자들이

모여 창단했다. 이날 공연은 프란츠 폰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을 비롯해 조지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제키니 지 아브레우의 '티코 티코 노 푸바', 비토리오 몬티 '차르다시', 그스타프 홀스트의 'Second suite in F, op.28' 곡 등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전한다. /최명진 기자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 기념 시범공연이 열린 대극장 전경

<독자 제공>

광주예술의전당 음향 개선 '؟'

291억 리모델링 후 첫 연주회 공연장 핵심 '소리' 불만 쇄도

소요 기간에 비해 음향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공연 내내 무대에서만 소리가 났었다"며 "객석에서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공연장으로선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람객도 "오랜 시간 기다려온 재개관 무대인데 음향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며 "생각보다 작은 울림과 소리가 울려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음향 설비, 무대 장비 등 공연장 리모델링을 한 광주예술의전당의 음향 개선 효과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음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좌석 위치에 따라 명료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전용 콘서트홀이 아닌 다목적 공연장임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관 이후 첫 시범 공연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372회 정기연주회 'Titan'이 열렸다. 광주시향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말러의 교향곡 1번 'Titan'을 선보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재개관을 기다려왔던 시민들은 많은 예산과 리모델링

다. /최명진 기자

김혜진·명지민 피아노 듀오 콘서트

오는 5일 금호아트홀



김혜진

명지민

젊은 두 피아니스트 김혜진·명지민 듀오 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호두까기 인형', 미국 작곡가 불콰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덴의 동산',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리베레 탱고'를 들려준다. /최명진 기자

더웨이앙상블 단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여러 나라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전반부에는 드라마 '밀회'를 통해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환상곡 작품번호 90', 프랑크 작곡가 라벨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발스'가 연주된다. 후반부에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Massa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4DRYS

HEALTH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직원 구함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급여 상담 후 결정)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